

풍요로운 삶 심고 한여름밤 시원하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및 전주지소, 전주 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가 후원한 '2019 아름다운 동행 별밤콘서트'가 지난 30일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과 박주현 국회의원, 이남숙 전주시의원, 이영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식전행사, 개회식, 본 공연, 행원권 추첨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양욱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연으로 인해 소외 계층에 삶의 풍요로움과 용기를 심어주고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 풍남문과 별밤 아래 강정원 MC가 무대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통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박영일씨.



열창하고 있는 박부철씨.



백금녀 교수와 문희생 '이리장교'.



마술을 펼치고 있는 권미진씨.



노래하는 이수정씨.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도도희씨.



인사말하는 김양욱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공연 출연자들과 함께 한 김양욱 소장(사진 왼쪽부터 세번째).



공연에 참석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모습.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완산경찰서 시민 경찰봉사대원.